

Las Vegas에서

현은자(기학연 편집위원, 성균관대 아동학과 교수)

책과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가. 그 일은 올해 1월 6일 오후 Las Vegas strip에 위치한 플라밍고 호텔 23000객실에서 일어났다. 매년 1월 초 그 도시에서 열리는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Consumer Electronic Show) 행사에 남편을 따라 온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무척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다가 남편의 권유로 작년에도 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는 이곳에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싶어 오지 않았었다.

3일 밤 9시경 LA에서 타고 오는 비행기 창을 통해 나는 이 도시와 처음 조우했었다. 사방이 칠흑처럼 컴컴한 가운데 갑자기 저 밑에 나타난 휘황찬란한 불야성, 그것이 라스베이거스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메마른 흙과 모래 산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도착해서 그동안 시내구경과 호텔구경, 쇼 관람, 그리고 주변 사막으로 관광을 다녔다. 이 중에서 관광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흙과 바위가 온통 붉은 색인 Valley of Fire 와 깊은 계곡을 흘러드는 콜로라도 강을 막는 대역사 끝에 세워진 Hoover Dam 관광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1935년에 완공된 이 Hoover Dam으로 말미암아 네바다주와 아리조나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지형이 바뀌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빛과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틀 후면 이 도시와도 이별이다.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방에는 혼자 남았다. LA와 시간을 같이 쓰는 탓에 이곳은 아직 5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위는 벌써 어둑해지고 있다. 길 건너 편에서는 벨라지오 호텔 광장 앞의 분수쇼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서는 Bally's와 Caesars Palace 호텔의 전면과 측면이 막힘없이 잘 보였다. 각 호텔들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도시의 건축물들을 모방하고 있었다. Caesars Palace 호텔주변에는 로마의 콜롯세움과 시이저의 동상, 아테네 신전의 축소판이 가득 들어차 있다. 저 거리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Venetian 호텔과 Treasure Island 호텔의 네온사인도 보일 것이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동안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가지고 온 책을 한권 펼쳤다. Gene Edward Veith, Jr.의 「Postmodern Times: A Christian Guide to Contemporary Thought and Culture」 라는 책이다. 몇 년 전 포스트모더니즘을 공부할 때 몇 군데 보았는데 오기 전 여행갈 때의 버릇대로 서재에서 책을 몇 권 급히 고를 때 눈에 띄어 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7장 “metafiction” 장을 읽으면서 전통 예술과 모던 예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예술의 차이를 흥미있게 읽었다.

목차를 훑다가 이번에는 111쪽부터 전개되는 6장 <Towers of Babel: The Example of Architecture>을 읽기로 하였다. 저자는 그 장의 도입부분에서 포스트모던 예술은 이제 T. V.와 영화, 록 뮤직, 컴퓨터 게임에 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즉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 빌딩, 쇼핑몰, 가정집에까지 주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순수 예술보다 건축물이 이 시대를 더 잘 반영하는 이유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박물관의 예술보다 우리가 살고 일하는 장소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더 잘 증거하고 있으며 건축은 그 디자인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과 그 빌딩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취향과 가치를 “순수 예술” 보

다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모던 건축은 추상적인 반면, 포스트모던 건축은 참조적(referential)이다. 모던 빌딩은 자기 충족적(self-contained)이지만 포스트모던 빌딩은 주변과 묶여져 있다. 모던은 현재를 숭배하지만 포스트모던은 과거에 대해 열려있다. 모던 디자인은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양식적으로 다원적이다. 모던 빌딩은 그들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내세우지만 포스트모던의 높은 건물은 밝은 색과 풍성한 장식적인 세부를 과시한다. 장식품은 언어 도단적일만큼 비기능적이며 과거의 스타일로부터 끌어온 것이다.

... 포스트모던 건축물은 <라스 베이거스로부터 배우기(Learning from Las Vegas)>라는 제목의 책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삼는다”

내 눈은 커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지금 저자는 바로 이 도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급히 그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의 작가인 Robert Venturi는 현대 건축물의 엘리트 의식에 저항하며, 대중적이고 인간중심적인 Las Vegas strip의 건축물들과 다른 상업용 빌딩을 옹호한다. 모던 건축물의 콘크리트 슬라브대신 Venturi는 평범한 사람들의 변덕과 환상에 솔직하게 영합하는 빌딩들 즉, Vegas 호텔의 번지르르함과 사치스러움을 높이 산다. 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빌딩은 그 자신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 즉 언어의 한 가지 타입이다. 빌딩은 그러므로 참조적이어야 한다. Venturi는 놀이스럽고, 우스꽝스러우며 관습적으로 말한다면 나쁜 취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빌딩에서 어떠한 나쁜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형태보다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구조물을 창조하는 대신, 역사적인 스타일을 회복하면서, 약간의 미학적 인 맛을 존중하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빌딩을 디자인하는, 건축에서의 포스트모던 운동은 신선한 변화이다. ... “

나는 어제 둘러본, 이 호텔에서 두 블록 쯤 떨어진 베네치아 호텔을 떠올렸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도착하면 맨 처음 보게 되는 성 마르코 성당과 그 좌측의 두칼레 궁전, 성당 앞 광장, 운하와 곤돌라까지 베네치아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호텔이다. 그 중에서 곤돌라가 관광객들을 싣고 호텔 주위의 호수를 왕복하는 모습에는 실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건물 내부는 두칼레 궁의 천정화까지 재현하고 있었다. 과거의 모방품이므로 고유성과 의미는 기대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지만 중세의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리 만족을 선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두칼레 궁을 본 따 만든 건물의 외벽 복도를 따라 성 두오모 성당쪽으로 걷게 되는 관광객들은 잠시 몇 분간만이라도 베네치아에 와 있는 듯한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17쪽으로 넘어갔다.

“현 시대의 건축물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혼동이다. 만일 여러분이 거리를 지나 새로 건축한 사무실 빌딩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첫 번째로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은 빌딩들이 오늘날 나무로 완성되는 오솔길과 밝은 햇빛을 포함한다. 옥외가 옥내로 들어왔다. ..” .

나는 이 곳의 호텔들이 각 도시의 건축물의 외양이나 내부를 모방했을 뿐 아니라 그 도시의 길과 상점, 하늘과

구름, 심지어 거리 분위기까지 건물 안으로 들여온 것을 흥미롭게 보았다. 파리, 베네치아, 알라딘 호텔 안에 들어선 상가 거리의 천정은 구름이 떠있는 하늘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어두운 거리의 조명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레스토랑과 카페와 어울려 묘하게 도시의 퇴근길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마도 포스트모던 건축과 그것이 현대 사회와 갖는 관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성과 예는 쇼핑 몰일 것이다. 사람들은 몇 에이커에 걸쳐 펼쳐있는, 특징없고 창문없는 콘크리트 벙커가 무료 주차장의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쇼핑객들은 오래된 동네와 나무, 분수, 광장, 그리고 거리의 카페를 만나게 된다. 각 가게들은 자신의 고유한 장식을 하고 있다. 전체 공간은 매력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욕망과 변덕에 맞추어 디자인되어 있다. 모든 세부적인 장식들은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비해라” 쇼핑 몰은 소비주의와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가치, 즉 위안, 풍요로움, 편리함, 패션의 성전이다. 중세에는 성당이 있었으며 모던 시대는 공장을 가졌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쇼핑 몰을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로 모양 없이 지어진 쇼핑몰의 겉모습에 대한 묘사는 이곳 호텔의 외양과 맞지 않지만 내부에 대한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곳의 모든 호텔은 그 내부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무와 카페의 벽을 장식한 넝쿨, 간판 등은 호텔의 주제와 맞으며 상점에서도 고유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베네치아 호텔의 상점에서는 이태리 산 대리석과 유리 상품들을 팔고 있다. 파리 호텔의 상가에서는 파리의 그것과 닮은 카페와 빵집들이 늘어서 있다.

117쪽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저자는 쇼핑몰과 주제 공원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있었다.

“포스트모던 건축물의 다른 경쟁자는 주제 공원(theme park)이다. 공원의 다른 구역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대와 문화적인 환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상점과 레스토랑, 각 구역의 탈것들은 구 유럽, 캐리비안의 해적, 유럽의 마을, 미국의 주요 거리 등의 ” 주제 “를 그린다. 그 시대와 문화의 특징적인 스타일은 그 주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공원은 무대 장치 같은 건물 외관의 환상적 세계와 대리경험인 ” 가상 실재(virtual reality)“를 제공한다. 모든 것은 소비자의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주제 공원의 진짜 주제는 전적인 오락(total entertainment)이다.

그리고 저자는 뒤이어 교회가 몰과 주제공원을 닮아가며 기독교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배는 오락이 아니며 성령의 임재 안에 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쯤 해서 나는 그가 이 장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 궁금해졌다. 그는 결론 부분에 “Babel revisited”라는 제목을 붙였다.

“...만일 모더니즘이 그 자부심으로 인해 바벨탑을 연상시킨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복수성과 혼란으로 바벨의 저주를 대신한다. 그러나 언어의 혼란이 그 바벨탑에 대한 적절한 심판인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많은 방식에서 모더니즘의 건강한 수정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모더니즘이 하지 못하였던 많은 방식으로 기독교 정신의 여지를 열어놓는다. 과거에 대해 열려있는 것, 편협한 이성주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포스트모던의 통찰력은 기독 세계관의 회복에 모두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절대를 거부하며 하찮음과 상대주의 그리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은 기독교 정신을 손상시킨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시대는 오순절 즉,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선물과 바벨의 저주를 원상대로 돌릴 수 있는 성령을 필요로 한다 “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선물” 이라 그것이 무엇일까? 어두운 실내등 아래에서 오랫동안 책을 읽노라니 눈이 아파왔다.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이 도시의 모든 호텔들은 Veith가 지적한 포스트모던 건

축물의 특징을 거의 다 갖추고 있다. 호텔 건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경하는 다양한 도시와 그 유물들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주제에 맞는 공원과 구조물들이 있다. 나른하게 걷거나 즐기고 있는 플라밍고, 유유히 운하를 왕복하는 곤돌라, 조명을 받아 춤추는 분수, 해적선의 전투, 화산 폭발은 호텔의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호텔 안의 상가는 그 모델이 된 도시 거리의 모습과 분위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저녁마다 각 호텔에서 공연되는 쇼도 호텔의 주제에 맞게 기획된 것이다. 매직, 춤, 음악, 서커스 등이 종합된 이 쇼들은 세계 최고의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들이다. 호텔의 뷔페 레스토랑에는 해산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곳의 상징, 카지노가 있다. 카지노는 매직 쇼보다 더 짜릿하며 쇼보다 더 소비적이며 술보다 더 중독적이지 않는가? 한 건물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건축물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왜 Veith는 이 곳 호텔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고 있을까. 그는 다만 Robert Venturi의 「Learning from Las Vegas」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Veith는 Las Vegas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일까. 혹은 이 곳이 너무 잘 알려진 곳이라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책이 1994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그가 이 글을 쓸 때에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대표적인 호텔들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어느새 사막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사위는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 때문에 거리와 호텔의 네온사인은 더 현란하고 자극적이다. 그것은 더 없이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주빌리 쇼의 무희를 닮았다. 낮에 보았을 때 보다 더 멀리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막의 언덕과 산은 어슴프레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 밤에 비행기 안에서 이 도시와 처음 조우했을 때의 인상이 되살아났다. 컴컴한, 텅 빈 사막 가운데 꿈과 같이 나타난 도시, 황무지 가운데에서 환상이 실재가 된 도시... 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렇구나, 바로 이 도시 전체가 포스트모던 구조물 아닌가. 이 도시, 그 자체가 인간의 환상과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상 현실' 이 아닌가.

그런데 이 '가상 현실' 이 현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몇 백 킬로미터 떨어진 Hoover Dam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없다면 이 도시는 당장 주변의 사막과 같은 암흑의 공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Hoover Dam의 물은 사람 뿐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한다. 땅에 심긴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마다 닿아 있는 가느다란 송수관의 물이 끊긴다면 이 도시는 곧 저 바깥 세상과 같이 마른 덩불들이 서적거리는 불모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바로 이 도시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Hoover Dam이 생산하는 물과 에너지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도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 매순간 붙들려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 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을진대 그 분의 붙드심이 없다면 우리와 이 창조세계는 그 순간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한 밤중이건만 거리에는 여전히 오고가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차도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로 가득하다. 주말이라 더 활기가 넘치는 것인가. 커튼을 단았다. 시끌벅적한 TV를 켤 때처럼 갑자기 방안이 고요해졌다. 그 때 알았다. 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은 빛이 아니라 소리였다는 것을... 들리지 않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이제 내가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이 도시를 사진으로 담아야겠다. Las Vegas strip에 늘어난 호텔과 구조물들을 찍어야겠다. 이 곳의 공기와 냄새까지 찍을 것이다. 아주 세세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읽고 보고 느낀 것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아야겠다. 이 시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되고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노라니 가르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몰려왔다.